

#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회기간 협상 열려

- 올해 2월 1차 협상에 이어 상품·서비스·디지털 등 핵심분야별 협상 진행

우리나라와 조지아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회기간 협상이 4.15.(월) ~ 4.17.(수) 서울에서 개최된다.

\*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유법민 자유무역협정 교섭관과 조지아 측 게나디 아르벨라제 경제지속성장부 차관을 각각 수석 대표로 3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조지아에서 개최된 제1차 공식협상에서 양측은 협정문 전반에 걸쳐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진전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기간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디지털, 협력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조지아 정부는 농업, 관광, 재생에너지 및 물류·수송 인프라 분야에서 다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할 경우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조지아를 거점으로 코카서스 지역으로의 우리 기업의 수출 및 진출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책임자	과 장	박근오 (044-203-5830)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권지은 (044-203-5837)